

2015 년 11 월 1 일 주일 예배 “야고보서(2) 지혜가 함께 하는 삶” (약 1:2-8; 3:13-18)

<도입>

하나님 창조는 그분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던 사랑이 보이는 세계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모양과 색깔과 방식과 원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. 보이지 않던 하나님 맘 속의 것들이 보이는 형태로 지어질 때, 하나님 지혜가 사용된 것입니다. 이 세상 모든 생명과 피조물들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.

[1] 성경적 지혜에 대한 이해

성경의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책들(시편, 잠언, 전도서 등) 중 **잠 8:22-31** 은 오실 구주가 지혜의 창조주임을 말해줍니다. 그분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다. 신약과 요 1 장에는 지혜 사상이 나타납니다. 또 예수님은 “**지혜**(자신)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”(마 11:19)고 하셨습니다.

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도록 요구 받습니다. 우리 안에 하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내 인격을 주장하게 되면 내 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, 스타일, 태도의 모양과 색깔이 지어져서 드러나게 됩니다(재창조, 새 존재)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quality 는 지혜로 인하여 결정됩니다. (위로부터 얻는 지혜, 3:13 참고.)

[2] 당하는 시험 속에서

야고보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(시련)이 따른다고 말합니다. 정도 차이가 있을 뿐, 예외가 없습니다. 시련은 인간의 내적인 힘(속 사람의 강건함)을 테스트합니다. 그래서 외부(사람, 사건, 환경 등...)로부터 오는 시련을 잘 이겨낸다는 의미는 속 사람이 강건하다(inner strength)는 뜻입니다.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에는 인내(참음)가 요구됩니다.

그러나 야고보는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버티고만 있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인내는 지혜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.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겸손을 전제하며, 또 인내 중에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. 따라서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(4:6). 여기서 지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,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(Kendall). 탁월하거나 특별하게 보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, 단순하고, 온유하고,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임을 당사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.

[3]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?

대처한 상황에서 구할 때 지혜는 즉각 주어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게 합니다. 어떤 사람과 불화 관계 속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그를 피해야한다면 이미 인내를 잃었습니다. 그러나 그와 함께 할 때에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. 그 때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.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. 이러한 지혜가 바로 내 사랑의 quality 를 높여주는 것입니다.

[4] 두 마음을 품은 자

야고보는 의심하는 자(믿음이 없는, 즉,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)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. 마치 ‘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’ 같다는 것이죠. 이런 사람을 ‘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(unstable) 자’라고 불렀습니다.

- (1) 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할 영적 필요(믿음, 인내의 자세...)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.
- (2) 영적인 반항 상태에 머무는 사람.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리고, 하나님께 차마 못할 때 사람과 환경, 교회, 리더들에게 투사하기도 함.
- (3) 무조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포자기 한 사람

